

2013
3



C O N T E N T S

◆ (도시이야기)

- 녹색 회랑을 통한 녹색도시의 실현(I)

◆ (기획연재)

- 인천의 지명 유래(중구 I)

◆ 도시계획 포커스

- 법률 개정사항
- 새로운 정책

◆ 인천시 도시정책 동향

- 조례·규칙 개정사항
- 주요정책



도 시 계 획 과



1. 녹색도시회랑 개념

녹색도시회랑은 그린웨이, 탐방로, 녹지축, 생태네트워크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사용어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린웨이(greenway)”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적 형태를 갖고 있는 녹지 또는 하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선형 비오톱 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중요 녹지거점을 연결하여 녹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녹지의 구조로서 “녹지축”이라는 용어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녹색도시회랑의 다양한 유사개념은 주로 ‘생태계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탐방로는 걷기·문화 탐방, 자전거 타기 등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녹지네트워크는 선형 구조보다는 망(네트워크)형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도시회랑은 신도시와 구도심, 역사문화, 해양생태, 건강체육, 여가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통로로서, 일정한 규격과 지원시설을 갖춘 사람중심의 도로이자 연결녹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로공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녹색도시회랑 유사개념

구분	주요개념	목적/효과
그린웨이	선적 형태를 갖고 있는 녹지 또는 하천	▪하천·도로경관 향상 ▪삶의 질, 지역매력도 향상
탐방로	야외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는 길	▪역사탐방, 환경교육 및 체험 ▪도보위주의 활용
녹지축	중요 녹지거점들을 연결하여 녹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녹지의 개략적 구조	▪도시개발시 생태적 중요 지역 고려 ▪삶의 질 향상
녹지네트워크	공원 및 식생현황 등의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	▪녹지서식처의 유기적 연결 ▪삶의 질 향상

출처 : 국토연구원(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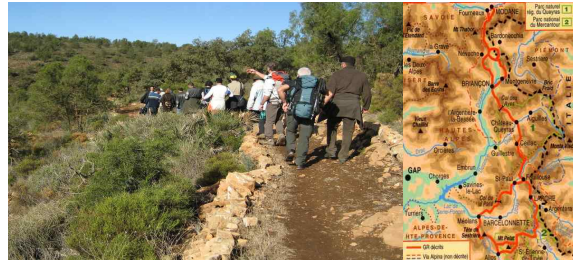
2. 녹색도시회랑 선진사례 분석

1) 국외사례

□ 프랑스 랑도네(randonee)

프랑스 랑도네(randonee)는 최근 각광받는 스포츠로서 프랑스 전역에 걸쳐 다양한 자원과 탐방로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코스는 프랑스 랑도네 연맹(FFRP) 회원들이 직접 답사해 제작한 토포 가이드에 안

내되어 있으며, 랑도네 코스의 총 연장은 18만km이다. 최근에는 대도시형 랑도네와 다양한 테마형 랑도네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랑도네의 지정 및 운영·관리는 FFRP에서 하며, 자발적인 참여 및 동호회 구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랑도네

□ 일본 장거리자연보도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는 역사·문화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길로써 1970년부터 조성되어 총 21,319km에 달하며, 간선과 지선으로 나뉜다. 장거리 자연보도는 환경성에서 권역을 지정하는데, 각 권역에서 계획을 내고 환경성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지방정부와 NPO 등의 민간단체가 결합하면서 민간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주로 국정공원 및 국립공원 사업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일본 장거리자연보도

□ 미국 National Trail System

미국 NTS는 야외 활동과 자원보존을 조화롭게 하며 공공과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탐방로로 1968년에 조성되어 지역에 적합한 3가지의 탐방로와 1개의 접근도로로 구분된다. 국가풍치트레일과 국가유적트레일은 NTS법에 의해 의회에서 지정하며, 국가휴양트레일은 장관에 의해 승인되는 지방의 특색있는 길이다. 연방정부에서 제도적 틀 마련 및 지원 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기



관과 시민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되며, 유형에 따라서 다른 관리가 이루어진다.

2) 국내사례

□ 마을길 : 북촌 역사문화탐방로

한옥밀집지역으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통 가옥과 정주패턴 등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길이는 3km이다. 역사문화탐방로, 전시관 등의 유형이 있으며, 한옥개보수지원, 한옥 및 비한옥 매입 등이 사업예산으로 사용된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체험이 가능하며, 도보로 이동하면서 각종 체험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 산책로 : 한강시민공원-여의도 공원-샛강생태공원 보행자-자전거도로

지리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이 파형대로 여의도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여의도와 영등포 사이에 샛강생태공원이 위치하고, 그 중간에 여의도 공원이 위치한다. 면적은 한강시민공원은 39.9km², 여의도 공원은 23만km², 샛강생태공원은 18만km²이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학습장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한강사업본부 내에 12개의 관리·운영 센터가 있어 각각 이를 관리한다.



<그림 3> 한강시민공원-여의도공원-샛강생태공원

□ 해안길 : 제주 올레길

제주 올레 길은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제주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의지로 조성되었다. 2007년부터 제주 올레 길 조성이 본격화 되었는데, 약 180km이며 오름 및 중산간도로, 해안길 등 총 11개의 코스로 나뉜다. 차도는 되도록 배제하고, 끊어진 길을 잇는 등 9개의 원칙하에 여러 번의 답사를 통해 길을 내는 방법으로 조성된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와 제주자치도청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림 4> 제주 올레길

3) 시사점

녹색도시회랑의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가전체 차원에서 녹색도시회랑이 조성되었고, 국내사례에서는 국지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또한 최근 국내의 걷기열풍을 반영하듯 지자체별로 산책로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외사례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를 부여(프랑스), 간선코스와 지선코스 등 코스를 다양화(일본), 기능별로 도보, 승마, 자전거 등 이용수단을 다양화(영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관리운영에 있어서 독립 관리운영주체(프랑스)를 두고, 지자체와 NPO 등이 협력하여 운영(일본, 북촌 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녹색도시회랑 조성을 위해서는 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② 녹색도시회랑의 위계 설정(간선, 지선 등), ③ 지역 NPO와의 결합을 통한 관리운영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인천시 여건분석

1) 현황분석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조성을 위하여 활용가능한 자원, 즉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① 역사문화자원, ② 해양생태자원, ③ 건강체육자원, ④ 여가레저자원 등으로 구분된다.

역사문화자원은 구한말(舊韓末) 개화(開化)기 인천은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듯 문화재, 문화시설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은 타 도시와의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자원은 바다에 접한 인천시의 특성과 1989년 웅진군 등의 편입으로 인해 증가한 섬과 문학산, 마니산



<표 2> 녹색도시회랑 선진사례 시사점 분석

구분	국외사례			국내사례		
	National Trail (영국)	랑도네 (프랑스)	장거리 자연보호 (일본)	마을길 (북촌역사문화 탐방로)	산책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샛강생 태공원 보행자· 자전거 도로)	해안길 (제주 올레길)
지정 현황	•영국 전역 •총 4,000여km 조성	•프랑스 전역 •총 연장 18만 km	•일본 전역 •약 21,319km	•서울시 종로구 •3km 조성	•강동구 하일동~강 서구 개화동(39.9km)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만km²)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만km²)	•제주도 남부지역 (180km)
유형 기준	•이용수단 •규모, 기능	•규모, 연장 •소요기간	•소요기간, 기능 •대상지 특성	•대상지 특성 •기능	•대상지 특성 •이용수단	•소요기간 •대상지 특성
관리 운영	•영국정부-기본원칙 작성 •지방 정부-실 제 적 운영 관리계획 수립 •재정지원-중앙정부, 기타 재정지원기관 등 조달	•FFRP에서 지정 및 운영·관리 주관	•지자체-운영· 관리 주체 •지방정부와 NPO 결합 운영 •예산지원-국정공원 및 국립공원 사업 비	•사업주체 : -종로구청 •협력기관 -(사)종로북촌가꾸 기회	•한강사업본부 내에 12개의 운영 관리 센터가 있어 각각 이를 관리함	•제주자치도
특징	•기능별로 도보, 승마, 자전거 등의 이용수단 명시	•도심형 랑도네 및 테마형 랑도네 확산	•간선코스와 지선코 드로 나누어 지정 활용	•한옥밀집지구 중심 조성 •도보로만 접근 가능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학습장 등 조성	•오름 및 중산간도로, 해안길 등 총 11 개의 코스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양, 산악, 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강체육자원은 해수를 활용한 강화해수피아 등의 온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문학체육관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건강·체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레저자원은 송도유원지, 을왕리 해수욕장, 100여년 전통의 애관극장 등이 활용가능하다.



<그림 5>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관련 어메니티 자원 분포도

2) 녹색도시회랑 관련 정책 분석

인천시의 녹색도시회랑 관련 정책을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천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Green 인천 건설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혁명,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③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④ 녹색공간 창출 및 저탄소 도시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20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중 ‘녹색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도심 녹도연결사업,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고부가가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화 둘레길 등 도보관광코스 개발, 생태교육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저탄소 친환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인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심 녹도연결사업과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인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숲 간 녹지 연계(도심 녹도연결사업), 훼손된 녹지의 복원(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그린웨이(인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3> 인천시 관련 정책검토

부문	추진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 녹색정책 추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 여건조성 ■ 녹색생활혁명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실현 ■ 그린인천 브랜드 마케팅 및 그린 리더십 제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목록 등 정보관리 및 정책지원체계 확충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충 ■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사업 아이템 발굴 및 녹색상품 개발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지원 ■ 에너지 효율 및 자급률 제고 ■ 녹색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 고부가가치 생태관광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개발과 그린경영 컨설팅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1. 도심 녹도연결사업 2.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등 3. 강화 둘레길 등 도보관광코스 개발 4. 생태교육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div>
녹색공간 창출 및 저탄소 도시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구조 창안 ■ 친환경 건축 등을 통한 저비용 도시건설 및 재생 ■ 저탄소친환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조성 ■ 친환경 대중교통 및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지 확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5. 인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div>

또한 관광코스(강화 둘레길 등 도보 관광코스 개발) 및 교육관광 프로그램(생태교육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SWOT 분석

인천시의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도입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강점(Strength)

①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 보유 : 역사문화자원, 해양 생태자원, 건강체육자원, 여가자원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역사적 전통을 갖춘 활용가능성이 높은 어메니티 자원이 존재한다.

② 도·농 복합 : 인천시는 8개구(도시), 2개군(농촌)으로 이루어진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③ 기존 자전거도로 활용가능 : 현재 인천시는 2009년에 자전거 전용도로 346km를 새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약점(Weakness)

① 지리적 여건 : 인천시는 강화도, 영종도 등의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지역과 육지지역 간에 1~2개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교량에 녹색도시회랑을 조성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② 구시가지 좁은 도로 : 현재 인천시의 구시가지는 좁은 도로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자동차도로를 일부를 녹색도시회랑으로 조성할 경우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③ 시설설치 비용 : 녹색도시회랑에 접하여 설치될 공영장, 상점, 관공서 등의 설치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 기회요소(Opportunity)

① 인천광역시의 추진의지 : 인천시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화둘레길, 인천 그린웨이, 도심 녹도 등 녹색도시회랑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어, 향후 녹색도시회랑의 조성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사회적 요구 증대 :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걷기 및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조성에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 자전거도로망 등이 인천시와 인접해있어 연계가능성이 높다.



③ 신도시와의 연계가능성 :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청라지구 등)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기존 계획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녹색도시회랑을 조성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협요소(Threat)

① 교통체증문제 : 최근 자전거도로 조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도시회랑으로 인하여 교통체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정책목표 및 추진주체 문제 : 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시민단체, 독립 관리운영주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③ 예산확보 어려움 : 녹색도시회랑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민간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공의 역할이 증대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랑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연계

녹색도시회랑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간과 새로 조성되는 녹색도시회랑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 하천, 보행자도로 등)과 녹색도시회랑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신규로 조성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녹색도시회랑 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녹색도시회랑과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로 주민편의 증대와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생활패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인천시 주요 거점 연계

인천시의 면적은 약 1,000km²이며, 다양한 역사문화, 해양생태자원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녹색도시회랑을 연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강 점 (S)	약 점 (W)	
기 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녹색도시회랑 조성시 걷기, 자전거 열풍에 대응할 수 있음 ■ 신도시 지역 등 기존 자전거도로망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국가 자전거도로망 등과의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 등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국가 자전거도로망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 문제해결에 도움이 예상됨 ■ 좁은도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도로 다이어트사업 등 인천시 추진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기 회 (O)
위 험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계획 추진 ■ 기존 자전거도로망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여건, 구시가지의 좁은 도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명확한 대책 수립 후 추진 ■ 예산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익성이 보장된 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위 험 (T)
	강 점 (S)	약 점 (W)	

<그림 6> SWOT 분석에 기초한 전략수립

4. 녹색도시회랑 조성 기본방향

1)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축 보전

녹색도시회랑은 생태계의 보전, 주민건강 증진, 여가 및 운동 공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인천시의 핵심생태축은 생태건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므로 보전위주의 녹색도시회랑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하여 녹색기반을 형성한 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진 녹색도시회랑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녹색도

따라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을 인천시 녹색도시회랑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광역 녹색도시회랑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거점별로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 해양생태자원을 연계하는 생활권 녹색도시회랑을 조성하여 녹색도시회랑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편집 : 이승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본 내용은 2010년 “인천의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Compact&Smart City”의 내용 중 이재준 교수의 발표자료를 일부 발췌 정리한 것임.



내동(內洞)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船倉里) 지역이었다가 1903년 부내면이 생길 때 이곳에 시청 격인 인천부 청사가 생기면서 부(府)의 중심지역이라 해서 부내면 내리(內里)라고 불렀다.



출처 : <http://db0353.blog.me/10090464471>, 현재 청국인 묘지

▶ 안말, 안골

내리가 쓰리재의 안쪽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안말, 안골로 부르기도 했다.

▶ 의장지(義莊地)

개항 직후 내동에 있던 청국인 묘지 자리를 부르던 이름이다.

▶ 서경정(西京町)

1936년 일제가 내리를 경정(京町)의 서쪽이라고 하여 서경정으로 개칭했다. 광복 후 다시 우리 식으로 내동으로 개칭했다.

경동(京洞)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 지역으로 1903년 부내면에 편입되면서 인천부 청사 바깥 마을이라는 뜻으로 외리(外里)라 불렀다. 1912년에는 일제가 이 일대에 살던 조선인과 일본인 마을을 나누어 조선 인촌은 외리로 부르고, 일본인촌은 내리의 일부를 합해 일본식으로 경정(京町)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다시 외리로 고쳤다가 1936년 인천부 부역 확장 때, 경성으로 가는 길목 마을이라는 뜻을 살려 다시 경정으로 환원했다.

▶ 바깥말, 바깥골

외리를 쓰리재의 바깥쪽이라 해서 우리말로 바깥말, 바깥골이라 불렀다.

▶ 경성통(京城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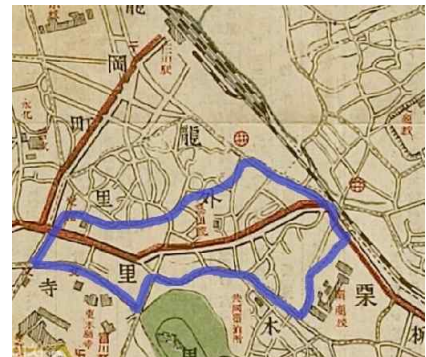
개항 직후 외리의 큰길 이름을 경성통이라 불렀다.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광복 후인 1946년 1월 동명 개정 때 일본식 명칭인 정(町)만 동(洞)으로 바뀌어 경동으로 명명했다.

▶ 쓰리재

동인천역에서 동인천 길병원을 지나 기독교병원을 향해 올라가는 샛길을 쓰리재길이라고 불렀다. 인천 토박이들은 쓰리재를 대체로 옛 상업은행 앞 야트막한 언덕을 지칭했다. 쓰리재는 '옛말 이곳에 쓰리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내동과 경동 일대를 부르던 삼리채(三里寨)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는데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다.

▶ 축현(軸峴)

내동, 경동 일대를 쓰리나무와 관계된 곳으로 생각했기에 쓰리재를 한자로 쓰리나무 축(軸)자와 고개 현(峴)자를 써서 축현(軸峴)이라 했고,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역명과 학교 이름도 축현역(현 동인천역), 축현초등학교로 불렀다.



출처 : incheonin.com, [문화칼럼] 배성수



출처 : <http://db0353.blog.me/10104643056>

▶ 긴담모퉁이

싸리재에서 기독병원을 지나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사이 길에는 담처럼 긴 축대가 있는데 이것이 신흥초등학교 쪽으로 굽어 있어서 이곳을 긴담모퉁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원래 신흥동과 경동 사이에 솟아있는 야트막한 구릉지였는데 신흥동과 동인천역의 통행을 위해 길을 뚫으면서 축대를 쌓아 그것이 담처럼 생겼다는 붙은 이름이다.

용동(龍洞)

1903년 부내면이 신설되면서 용리(龍里)라고 불리게 되었다. 1936년에는 용운정(龍雲町)으로, 광복 후에 우리 식으로 용동이 됐다. 용리나 용운정, 용동 모두가 이 마을이 용처럼 생긴 고개 주변에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용동은 1977년 내동, 경동과 합해 내경동이 되었다.

▶ 용동 큰 우물거리

용동의 큰 우물은 자연 우물을 1881년에 정비한 것으로 근래 수돗물이 보급될 때까지 이 일대의 식수원이었다. 물맛이 좋고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그 앞길을 용동 큰 우물거리라고 불렀다.

▶ 용동마루턱이

동인천에서 경동, 신포동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대로의 정상 부분을 지칭한다.



용동 큰 우물

인현동(仁峴洞)

인현동은 부내면 지역이었다. 1912년 일본식으로 용강정(龍岡町)이 되었다. 1946년 동명 개정 때 인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인현동은 지난 1998년 11월 인근의 내경동과 통합돼 행정동 동인천동에 속해 있다.



옛 청과물 공판장

▶ 참외전거리

참외전거리란 지금의 동인천역 앞에서 배다리에 이르는 경인철도 주변 거리를 일컫던 말이다. 이 길에 참외를 비롯한 과일 등 청과물이 모이던 곳이었다. 외전되어 채미전거리라고도 했다.

▶ 배다리

경동에서 내려와 경인전철 철교를 지나면 동구 금곡동 초입에 이른다. 과거 이 일대에 큰 갯골이 있어 만조 때면 바닷물이 들어 왔고 여기에 배가 닿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참고문헌 : 인천역사 6호 - 인천 지명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 법률 개정사항

[2013-02-05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공포·시행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 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를 통한 대상자 권익 보호와 청약활성화, ②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도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투자활동 촉진, ③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 :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사전 확인절차 강화함. 개정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주택기금과>

[2013-02-20 이제는 녹색건축 시대]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부터 시행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 2월 제정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② 에너지소비증명제와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③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의무화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④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로 국민들이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 제공, ⑤ 신축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에너지 평가사, 녹색건축자재 개발 R&D 추진 근거 마련, ⑥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22일 오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녹색건축과>

[2013-02-28 주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된다]

임대주택법 개정·공포(시행 '13.06.19)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입법예고(2.27~4.7)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①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부도 등” 요건 구체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부도 등”에 포함됨에 따라 일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함. 부도 등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임대무기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됨. ②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차단을 위해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③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제공방법 구체화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비중이 너무 클 경우 사업장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재산 피해도 증가됨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의 정보를 의무 고지됨.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재무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보증금·임대료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피해 예방효



과가 기대됨.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 표준임대차 계약서 중도해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②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 : 임대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계약후 즉시 입주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 개정안은 금년 6.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 향상 등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거복지기획과>

□ 새로운 정책

[2013-02-20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는 높아지고]

전국을 디지털로 전환하기에 앞서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한 제도와 기술 도입을 위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완료함.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3개 시·군을 선정하여 '11. 5월부터 선행사업을 추진함. 선행사업은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축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함. 빼빼빼뿔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킴. 또한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함. 지적재조사 사업은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도 있었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계를 우선 적용하여 경계를 반영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시행착오 없이 전 국토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됨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스마트 지적정보로 새롭게 재창조 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

[2013-02-26 미래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큰틀, 드디어 완성되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을 마련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2~'30)은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춤.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4년으로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함. 9개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를 제외한 535만 필지, ② 세계측지계변환 :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상호 운용성 확보, ③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 ④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추진조직,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설 및 지속적 교육, ⑤ 국민 참여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⑥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반연구를 통해 지속발전 방안 마련, ⑦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 선도적 수요창출, 지적산업 진흥 업무위탁, 수요자 중심, ⑧ 지적정보 품질관리 : ISO19152 LADM, ⑨ 국가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 지적·공간정보 세계시장을 주도 한국형 지적제도 수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함.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3-2-18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 비중이 75%이상으로 각종 민원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로 기존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 개정 준칙은 동별 대표자의 해임발의 및 해임 방법, 회의개최 일정 및 소집절차의 명확히 함. 아울러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에 대해 공개모집을 우선하고 대상자가 없을시 추천방식과 궐위 및 사퇴로 인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등에 대해 개정 보완함.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신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시 사용자분과 입주자분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구분을 명확히 함.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에 있어 대표회의 구성, 의결사항 등을 마련해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규약 개정에도 있어서도 입주자가 알고 참여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비교표를 배부하도록 함.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교육, 설문조사, 중재권고 등을 통해 소음방지 매트 등 소음방지 시설 설치의 권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개정함. <건축계획과>

[2013-2-21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행]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실효적 지속적 지원을 하고자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2월 21일 시행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함. ②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및 욕구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③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함. ④ 시에서 추진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을 정함. ⑤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거복지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 ⑥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건축계획과>

□ 주요정책

[2013-2-20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2월 20일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함. 정채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28개 시공사 중 1차적으로 15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고 시공사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추진계획을 경청함. 나머지 13개 시공사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는 '현장합동대책회의'시 실시할 예정임. 참석한 대부분의 시공사는 경기침체 등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함.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 송도·청라 미분양에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저가분양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은 분양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음을 토로 하였으며, 도시 주요기능의 신시가지 이전 및 토지가격의 상향과 반대로 분양가는 하향하는 등 원주민은 구매력이 없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음. 2013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방향으로는 '갈등이 가장 많은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해 및 약자에 대해 배려 교육'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요청시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전면철거에서 보전, 개량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전환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균형 잡힌 인천형 마을만들기 교육을 실시해 주민갈등 해소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현장합동 대책회의 등을 실시하기로 함. <주거환경정책관>





[2013-2-20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3. 2. 20(수), 14:32 ~ 15:50
- 장 소 : 영상회의실
- 참 석 : 23명중 15명 참석
- 총 1 건 (보류 1)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최 결 과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연희1·2, 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보류

<도시계획과>

[2013-2-21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시행]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화하고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건축 심의절차를 간소화 함. 기존 건축 심의도서를 책자형태로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개별 배부하던 것을 민원인의 방문 없이 E-mail(PDF)로 접수하여 심의위원에게 배부함으로써 도서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연간 1억5천여만원 절감하며, 전자발송에 따른 심의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결과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시행하여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및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이번 3월 심의시부터 시행하며 군·구에 전파하여 연간 450여 건에 달하는 심의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기여할 것임. <건축계획과>

[2013-2-27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3. 2. 27(수), 14:30 ~ 14:45
- 장 소 : 영상회의실
- 참 석 : 28명중 18명 참석
- 총 1 건 (조건부 가결 1)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최 결 과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조건부 가결

<도시계획과>

[2013-3-5 군구 연두방문 구도심 활성화 추진]

동구에서 시작된 올해 군·구 연두방문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지역별 방향을 제시함. 우선 인천지역 3·1운동의 시발지인 창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 7월 개관 예정인 송림경기장을 활용해 동구가 재활성화 되도록 도로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임. 특히 송림경기장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됨. 미림극장을 구가 매입해 사회적기업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실버영화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주민들은 지역의 역사를 지키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요구함. 이번 연두방문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대표사업을 정할 방침이며, 연두방문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하고 단기사업, 중·장기사업으로 나눠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자치행정과>



[2013-3-7 군구 연두방문 구도심 활성화 추진]

인천시장은 군·구 연두방문 두 번째로 부평구를 찾아 부평미군기지 DRMO 반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평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장고개길 도로를 연내에 착공 추진을 비롯하여 7호선 굴포천역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과 부평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 활성화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 길주로변 녹지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약속함. <자치행정과>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